

## 산자부,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강구

정부는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여 부품·소재 및 장비 특성별 기술 확보, 수요자 참여 부품·소재 기업 육성, 지속·자율적 발전 가능한 통합형 기반구축 등을 골자로 한 '부품·소재산업 3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이번 전략의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1000억원의 자금을 과학기술·산자·정보통신부가 각각 350억원 내외씩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이번 발전전략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외지에 따라 산자부가 과기부·정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부품·소재 및 장비를 미래원천형, 성장동력형, 시장수요형, 개발한계형, 제조장비 등 5가지 특성별로 나눠 기술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부품·소재 기술 경쟁력 확보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창출 ▲동북아 부품·소재 공급기지화 등 3대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 중기청,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확대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업체당 지원한도를 늘리고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도 확대한다.

중기청은 내년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사업에 올해 70억원보다 32억원 증액한 102억원을 투입하고 120회 내외의 파견을 지원한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의 참여수준을 높이고 규모화하기 위해 업체당 지원한도를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원 횟수도 올해 101회보다 20여 차례 늘려 120회 내외의 참가 및 파견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할 '틈새시장개척단'에 이어 내년에는 해외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전략업종과 품목을 대상으로 대규모 중소·벤처기업을 파견하는 '전략시장개척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량 중소기업 집중육성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정부가 직접 선별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중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휴맥스, 레인콤, 엠택비전처럼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세계시장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최근 월드클래스기업 육성계획을 마련해 기술력이 우수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100곳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지역본부의 추천을 받아 내년까지 1000개 후보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1000개 후보업체를 중합진단한 뒤 실천계획과 경영혁신 의지, 발전가능성을 종합 검토하고 지역별·업종별 선도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체 100개를 발굴한다.

중진공의 소수정예 중소기업 집중육성 계획은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각성에서 나온 것이다.

벤 처 이 슈

## 서울경제



▲ 2004년 11월 19일 서울경제 5면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과 관련, 정부정책의 배경과 정책수단, 문제점 및 시장반응 등을 심층진단한 특집기사.

daily



▲ 2004년 11월 22일부터 연재된 이데일리 기사

벤처 재도약의 필요성과 벤처가 경제회생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들에 관하여 '다시 벤처다'를 주제로 한 기획 연재기사